

안전, 우리 모두의 동반자

한국마사회 창원지점

취재 서성우 기자 dnd48@safty.or.kr

우리나라 경마 역사와 맥을 같이한 기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온 기관.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곳이 바로 한국마사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62년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마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업무는 경마 주관에만 그치지 않는다. 생활승마 활성화,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마문화 보급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말(馬)산업 진흥을 위한 원동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기 위해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3개 경마장과 3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거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소개할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이다. 창원지점은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을 통해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경마가 열리는 날에는 경마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마가 열리지 않는 평일에는 객장 전체를 문화센터로 운영해 지역 문화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은 결과다. 하지만 창원지점의 모든 관계자들은 안전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성장이 가능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2005년 4월 개장 이후 하루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와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을 찾아가 봤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원천차단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에서는 100여 명에 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2시간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에는 창원소방서와 협동으로 소방훈련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전사적인 안전교육·훈련이 실시되는 이유는 다른 아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마사회 어느 지점을 봐도 경마가 열리는 날에는 항상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물론 창원지점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입·퇴장 등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몰릴 경우 전도, 낙상 등의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지점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찾을 때에는 각 계단

미니 인터뷰

“언행일치, 안전의 필수요소입니다”



정호승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장

안전은 단순히 부르짖는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수반돼야만 비로소 안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순회점검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일까요. 안전은 항상 아니 평생을 같이해야만 하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인생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무자가 훈연일체로 노력해야만 안전한 직장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안전 속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보태어 나갈 것입니다.

및 엘리베이터 앞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해놓고 있다. 또한 주차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곳곳에 주차요원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전개

이곳에서는 매일 근무 시작 전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가 실시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또 매주 기기 및 장비의 안전 테스트가 시행된다.

아울러 매월 말에는 모든 근로자와 일부 고객이 참여하는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빈틈없는 안전관리는 매년 연초에 수립된 ‘안전계획’과 ‘기초질서확립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이들 계획의 중심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4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원지점에서는 ‘단순 반복형 재해예방’, ‘근로자 건강증진’, ‘재해발생 위험요소 제거’, ‘선진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안전보건전략으로 삼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고객 재해예방 관리, 장외발매소 안전관리 개선, 안전 캠페인, 금연캠페인 등은 모두 4대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실로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안전의식 함양이 가장 중요

안전과 관련해 창원지점의 목표는 확실하다. ‘무사고 무재해’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호송 지점장은 매일 아침 순회점검을 시작으로 하루 업무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자 모두는 발로 뛰고 눈으로 보는 현장 친화적 안전관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안전의식은 근로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돼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안전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안전활동이 전개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창원지점이 근로자간 친목도모를 위해 사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점. 앞으로도 이곳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널리 이름을 알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

